

생활하면서 힘이 없이 한다면 그대로 벗어칩니다!

20면에서 계속

에 온 누리에... 오늘 개천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군할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셔도 불성은 부처님과 이 중생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불성을 쓰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그 불성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힘이 없이 한다면 그대로 벗어칩니다. 그 영혼을 제쳐 버려야 하는데 그 영혼을 제쳐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쳐 버리려면 다 버려야 하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힘이 없이 한다면 그대로 벗어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노릇을 하고 남편 노릇을 했는데 어떤 노릇을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4시간 살아나가는 데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24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봤고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만났고 이런데, 내가 어떤 거 만났을 때 내가 했다고 그러며, 어떤 걸 봤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한 무더기로 그냥 공했다! 내가 하지 않았어도 운전수가 끌고 다니니까, 운전수가 즉 자기니까, 운전수가 자기를 끌고 다니고 모두 보게 하고 듣게 했으니까 운전수한테 다 감사하게 맡겨야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활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는 그 생활 속에서 돌이키게 공심(公心)으로, 공생(共生)으로 살 수만 있다면, 생활하는 것이 공해서 힘이 없다는 도리를 알고 넘어간다면, 그냥 편안하고 믿게 되고 그냥 놓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체말로 정말 '왔다'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진정한 생각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부처님의 이름이 따르므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인공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옹도에 따라서 '자장이다' 이런다면 죽는 사람은 좋은 데로 가게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어느 보살이나 있지만 그 옹도에 이름을 지어 놓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일체를 다 알아야 보살이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無)의 법도 그렇지만, 유(有)의 법에서 요만한 거 하나하나 거쳐 나갈 때,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큰 걸로 이어집니다. 조그만 거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조그만 거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큰 것도 잘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보살 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고 본다면 참, 이런 공부야 세세생생이 가도록, 돈을 들인다 해도 해야만 하는 공부입니다. 정말 이 공부하는 것은 이런 인연이 되지 않는다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전자에 인연이 돼서 이 마음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건데 우리만이 아

니라 일체제불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만날 청전을 해 드려도 뭐 조금도 손해날 일은 없지만 청전을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된다고 해서 즉, 아만이나 아상이나 거만이나 이런 거를 가져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더 알게 되면 마음의 고개가 딱 수그러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져요. 그렇게 할 때에 모든 것에 이익이 가죠. 나와 더불어 같이 이익이 가죠. 그래야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러니까 영령들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러더라도 걱정할 게 없고, 또는 어떤 병에 걸렸다 이러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폐업이다 백혈병이다 이런 것도, 큰 거고 작은 거고 다 평등한 거니까 작

모두가 일불입니다!
여러분한테 일불로
자물로 가르칩니다, 지금!
자신의 자물 하나에서
수많은 부처님이 나오니까!

고 크다 이런 거를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못 믿겨요. 그리고 식구가 다 모르고 한 사람만 다니면서 공부하거나, 어떤 때 보면 한 집안에서 몇 사람의 개인교를 믿고 그러는데 그렇게 병이 들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자기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제삼자가 어떻게 하는냐는 얘깁니다. 마음들의 문을 열어야죠. 그것이 말하자면 운명을 가져오는 거죠. 믿는 것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래요.

여기 다니는 여러분 중에도 가장자리에 그런 분들이 더러러 있지만 그래도 이 공부를 해 나가는 분들이 다 한자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아, 곳 곳마다, 처처마다 있다더니 처처마다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도 손가락으로 그 하늘이 무너지는 걸 바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데 이유를 붙이거나, 여자다 남자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가난하다 부자다 이것도 보지 마시고 그저 딱치는 상황대로 좋게, 섬섬직 섬섬직 해결만 하고 가면 되죠, 이

게. 사실 때에 거북스럽게 사사라는 게 아닙니다. 사는 거 그대로 사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다 걸어야 보살행이다 하는 것은, 팔정도라든가 사성제라든가 육바라밀이라든가 이런 이론적인 문제를 다 넘어셔야 된다 이런 건데 육바라밀,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말을 해 놔지만 그것도 그 마음 하나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마음 하나에서, 마음 하나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마음 하나를, 주인공을 딱 잡고 거기다 놓는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참, 소신껏 그렇게 잘하고 나가십니까. 그 말씀에 이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이 다 같이 그렇게 알아서 걱정 말고 편안하게 사사라 이런 겁니다. 이것 보면 이것대로 그냥 걱정하고 저것 보면 저것대로 걱정할 게 아닙니다.

▶ 질문자2(男): 저는 제주시원 심용회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스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스님께서 아주 쉽게 저희들이 한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스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 번 질문 올리고자 합니다. 평소 저희들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도살을 하거나 살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같이 있을 때 저는 항상 '도살하는 이에게 원망하거나 나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불법에 인연하여 진화 발전하라'고 이렇게 관하곤 합니다. 제가 그런 관을 할 때는 전도를 한다거나 어떤 다른 생각을 할 때 이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때로는 도반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스르지를 못하면서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가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스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다시 한 번 질문 올립니다.

▶ 스님: 그것을 길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단하게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정말이지... 내가 이런 얘기 또 하게 됩니다.

옛날에 승려들이 같이 한도랑에서 사는데 은사 스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선방이나니까 따져 본다면 수좌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아주 맨 아래에서 공양주 노릇을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까.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은사 스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영 드시는 게 싹달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운을 못 차려서 저렇게 병이 드셨나 보다 하고는 나가서 지팡이를 한 소쿠리씩 짊어서는 소금을 넣고 씻어서 산에서 다려서 그 물을 꼭 짜 가지고 온 것 드리고 갖다 드리고 이러니까, 거기

스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나를 살생을 해도 안 된다는데 수만 마리씩 그렇게 살생을 하니 너는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우리들까지도 문제가 되니까 너 그러하지 말아라." 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가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 스님만 살리면 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렁이도 스님과 하나로 돼서 진화가 되니까 좋고, 스님도 좋으니 양쪽을 다 살린 거죠.

우리 여기도 보면 한 부처님을 갖다가 수십 개를 만듭니다. 그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수십 가지, 수만 가지로 되려고 해도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제가 없어서 자유스럽다는 얘기죠. 그래 그런 마음을 갖

▶ 질문자3(男): 저는 제주시원 심용회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스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스님께서 아주 쉽게 저희들이 한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질문자3(男): 저는 제주시원 심용회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스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스님께서 아주 쉽게 저희들이 한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질문자3(男): 저는 제주시원 심용회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스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스님께서 아주 쉽게 저희들이 한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질문자3(男): 저는 제주시원 심용회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스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스님께서 아주 쉽게 저희들이 한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17일, 처음으로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알았어. 내가 뿌리를 믿고 살았어 자신의 뿌리를 믿도록 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불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와 집사님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선원에 열심히 다녔고, 다니다 보니 스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통신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영세 사업체는 합병을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업체와 합병을 해야 되지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야 할지 한바탕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에 맡기고 놓으려고 하지만 번외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풀려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스님 가르침 바라겠습니다.

▶ 스님: 지금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죠? 통신?

▶ 질문자3(男): 전화통신 공사업.

▶ 스님: 전화통신이요? 우리가 양쪽에 다 설치를 해 놔기 때문에 전화가 통하죠? 그러니까 주인공과 자기가 같이 연관이 돼 있죠? 여러분이 다요. 누누가가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전국에 다 전화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통신처거든요. 통신처만 되는 게 아니지만 지금 그 말이 나왔으니깐 그 면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주인공에다 통신을 해서 다 당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결단이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 사람만 도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데서 망이 다 이렇게... 음파가 통한다는 말입니다. 음파가 통하면 통하는 대로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응해 주십니다.

▶ 질문자3(男): 감사합니다.

▶ 스님: 동업을 한다거나 이런다면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거기다가 관해 보면 좋지 않아요. 좋다 이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세요. 또는 그거를 그렇게만 나눌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그 쪽이 나쁜 것을 해서 내가 장사를 못하겠다 하더라도 그쪽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더라도 해라 이 소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본문은 1999년 10월 3일 범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성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미음성원에서 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비의 명약 鳳凰山蔘

천제가 지상에 내려와 산신령으로부터 단 한뿌리만 얻어 갔다는 전설속의 봉삼

태조 왕건에게 1,000년된 봉삼을 바쳤다는 신비의 봉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불로초로 알려진 봉삼

모든 산삼중에 최고의 약 효능이 뛰어난 봉삼

죽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연장해 도와주는 봉삼

누구나 먹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봉삼



※ 초초강목에 의하면 봉삼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간, 위, 비대소장, 두통(만성), 해수, 열중독, 모든 지각성마비, 근육통, 살균피부염, 소염 이노에 특효라하고, 폐경, 대장경, 비경에 작용한다. 풍습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해독한다. 했고...

봉삼 달임액으로도, 이담작용, 해열작용, 억균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임상실험적으로 밝혀졌다. 풍한습비증, 황달, 대장염, 임중, 대하, 두드러기, 피부소양증, 유행, 비진 등에 쓴다. 그리고 수태음경, 수양명경에 작용하고, 풍비에 중요하게 쓰이는 약이라 한다.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환자분이나 수험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는 특별히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분들에게 선물용으로 최고입니다.

구입처 018-554-6198

소백산 무량사 人蔘 홍삼액기스

시중의 상품과는 차별화 했습니다. 순수 지방 국내산 6년근 인삼으로 정성을 다해서 가공했습니다. 드셔보시고 효능으로 평가 받고 싶습니다.

홍삼 액기스
90ml×60포 = 18만원(신약형 검사품)
90ml×60포 = 13만원(고급 무량품)
100ml×50포 = 10만원
100ml×50포 = 5만원

오가피액, 매(산약)도 있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 판매 수익금은 일체 미타전 불사에 쓰여집니다.

현대과학에서 본 인삼의 효능, 효과

인삼을 신비의 영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로부터 여러가지 질병의 치료와 병의 회복 촉진에 놀라운 효험을 발휘하는 효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대표적 효능으로는 신체조절기능의 향상성 유지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용에 근거하여 항피로 및 항스트레스 작용, 항당뇨 작용, 혈압조절 작용, 항암작용, 동맥경화 및 고혈압의 예방, 두뇌기능 강화, 위장기능 강화, 면역기능 증강, 항바이러스 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백산 무량사

문의전화 054-631-9974

※ 농협계좌 751019-51-095001 예금주 : 무량사

영남범패학인모집

[영남범패 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 의식을 6개월 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자 격 : 삭발의한 스님(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2007년 11월 12일 오후 3시 <주회 월·목>
- ◆수강일 :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주2회)
- ◆장 소 : 진주시 이현동 이현사가 내 406호 (불음원)
- ◆과 목 : 기초반 - 예경의식 및 사시불공 등 중급반 - 사삼구제의식 및 사물 다루는 법 고급반 - 비라 및 승무 작법
- ◆강 사 : 원범스님 (011-867-8419)

영남범패불음원

전자식 2종문 3종경보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떨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주100%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